

NAZARENE ESSENTIALS : WHO WE ARE - WHAT WE BELIEVE

나사렛교인의 본질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

CHURCH OF THE NAZARENE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목 차

- 환영사
- 웨슬리안 성결의 유산
- 지구촌 교회
- 핵심가치
- 사명
- 나사렛교인의 특성
- 웨슬리안 신학
- 신조
- 교회론
- 교회정치
- 교회: 개교회, 연회, 중앙총회
- 연결된 교회

“땅과 하늘에서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피니스 브리지 (Phineas F. Bresee)
나사렛교회 초대 중앙감독



나사렛교인의 본질이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영적 리더들과 성장하는 우리 신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기본가르침, 역사, 신학, 선교, 모금, 그리고 상호연계에 대해서 간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범한 언어로 출판하기를 원해왔습니다.

*나사렛교인의 본질*은 왜 나사렛교회가 웨슬리안-알미니우스 전통에서 성결과 주님의 지상명령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해서 *나사렛교인의 본질*은 열방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서적인 성결과 사명을 전파하는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렛교인의 본질*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nazarene.org 로 가서서 중앙감독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혹은 www.nazarene.org/essentials로 가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나사렛교인의 본질*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교인의 본질*을 알고 공부하시면 나사렛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나사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나사렛교인의 본질*은 나사렛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www.nazarene.org



요한 웨슬리, 1703-1791

우리의 웨슬리안 성결유산

나사렛교회는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대부터 표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한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됨을 고백합니다. 나사렛교회는 자신의 신앙의 표현들로서 첫 기독교 5세기의 에큐메니칼 신조들을 수용합니다.

나사렛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사역의 훈련들을 주지하고 사도적 믿음과 실천의 사역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 하는 역사적인 교회와 함께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성결 신학의 선포를 통해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에 대한 성서적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유산은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과 18세기 웨슬리안 부흥운동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존과 찰스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일대의 사람들은 죄로부터 돌이켰고, 그리스도인 사역을 위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평신도의 설교, 간증, 훈련, 그리고 신도회, 반, 그리고 밴드로 알려진 성실한 제자들의 모임 등으로 특징 지워졌습니다. 웨슬리안 부흥운동의 신학적인 특색들은 은혜를 말미암은 믿음에 의한 칭의, 성화 혹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은혜의 확신으로 이끄는 성령의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특별한 기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서 온전성결을 강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조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북미에서

감리교회는 대륙을 개혁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 전역에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 1784년에 조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19세기 중반에 전개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디모디 메릿은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안내’의 편집자로서 그 관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뉴욕시에 포에비 파머는 성결 촉진을 위한 화요모임을 이끌었고, 듣고 싶은 설교자, 저자, 그리고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1867년에 감리교회 설교가, 우드(J. W. Wood), 존 인스킵(John Inskip), 등의 사람들은 뉴저지의 바인랜드에서 전세계 성결에 대한 웨슬리안 요청을 새롭게 하는 성결천막집회의 연속된 일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결은 웨슬리안 감리교회, 자유감리교회, 구세군, 그리고 몇몇 메노나이트, 형제교회, 그리고 퀘이커 등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 운동을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전파했습니다. 인디애나, 앤더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포함한 새로운 성결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성결교회, 도시선교, 그리고 선교협회 등은 이런 노력으로부터 성장했습니다. 나사렛교회는 이 같은 많은 성결그룹을 하나의 성결교회로 연합하려는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결 안에서 연합

프레드 힐러리(Fred Hillery)는 1887년에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민중복음교회를 조직했습니다. 1888년에 매사추세츠, 린에서 선교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890년에 그들과 뉴잉글랜드의 8개의 다른 회중들은 중앙복음성결협회를 조직했습니다. 1892년에 안수 받은 애나 핸스컴(Anna Hanscome)이 나사렛계보에서 첫 번째로 안수 받은 여성목회자였습니다.

1894-95에, 윌리엄 하워드 후플(William Howard Hoople)은 뉴욕 부록클린에서 미국오순절교회협회를 구성했던 3개의 성결회중교회들을 조직했습니다. “오순절”은 이 사람들에게나 나사렛설립자들에게 “성결”에 대한 동의어였습니다. 힐러리와 후플의 그룹들은 1896년에 통합했고, 1899년에 인도와 1902년에 카페 베르디(Cape Verde)에서 사역을 설립했습니다. 선교실행 담당자 레이놀드(Hiram Reynolds)는 캐나다에서 1902년에 회중들을 조직했습니다. 그 그룹은 1907년에 노바 스코티아로부터 아이오와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버트 리 해리스(Robert Lee Harris)는 1894년 테네시, 밀란에서 그리스도신약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의 미망인이었던 메리 리 케이글은 1895에 서부 텍사스까지 전파했습니다. 저니간은 1901년에 텍사스, 반 알스틴에서 제일독립성결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1904년 텍사스 라이징스타에서 그리스도 성결교회를 형성하며 통합했습니다. 1908년까지 이 교회는 방치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했

고, 고아들과 미혼모들을 후원했으며, 그리고 인도와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과 연계하며 조지아에서부터 뉴멕시코까지 확장해갔습니다.

피니스 브리지와 조셉 위드니는 약 100여명의 회중들과 함께 189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사렛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물질이 영혼을 구원하고 빈궁한 사람의 구제를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들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사렛교회는 주로 미국의 서부해안 중심으로 퍼져있었고, 어떤 회중들은 동쪽으로 일리노이까지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들은 인도, 캘커타에 있는 토착선교를 후원했습니다.

1907년 10월에, 미국의 오순절교회 연합회와 나사렛교회가 감독제도와 회중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교회정치 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독들은 설립된 교회들을 독려하고 돌보고,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격려하지만, 온전히 조직된 교회의 독립된 의사결정은 간섭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성결교회의 대의원들이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총회에서 양쪽 조직에서 취해진 명칭인 오순절나사렛교회가 채택되었습니다. 브리지와 레이놀드가 중앙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08년, 9월에, 트럼바우(H.G. Trumbaur) 아래 그리스도성결교회의 펜실베니아 총회는 오순절나사렛교회와 연합했습니다. 10월 13일에, 두 번째 중앙총회가 텍사스, 파일럿 포인트에서 그리스도성결교회의 중앙회의와 연합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맥클루간에 의해 인도된, 오순절 선교회는 1898년 테네시와 인접한 주들에 있는 성결의 사람들을 연합하면서, 내슈빌에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쿠바, 과테말라, 멕시코, 그리고 인도에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파송했습니다. 1906년 조지 샤피는 웨슬리안 그리스도인 성결을 설교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서 파크헤드 회중교회로부터 탈퇴했습니다. 파크헤드 오순절교회가 형성되었고, 다른 회중들이 조직되었으며, 그리고 스코틀랜드 오순절교회가 190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오순절 선교회 및 스코틀랜드 오순절교회가 오순절나사렛교회와 1915년에 연합했습니다.

제5차 중앙총회(1919)는 교단의 공식적인 이름을 나사렛교회로 변경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단어는 19세기 후반 창립자들이 처음에 교단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을 때처럼 성결교리와 더 이상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신생교단은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원래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나사렛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은 1915년에 연합된 모교회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특성에는 국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단은 이미 미국, 인도, 카페 베르디, 쿠바,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일본, 아르헨티나, 영국, 스와질란드, 중국, 그리고 페루에서 조직된 교회들을 온전히 후원했습니다. 또한 1930년까지 교단은 남아프리카, 시리아, 팔레스타인, 모잠비크, 바바도스, 그리고 트리니데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족적 지도자들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연회감독 썬틴(멕시코), 히로시 키타가와(일본), 그리고 사무엘 부발(인도)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적 특성은 새로운 가입을 통해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모리슨은 많은 성결협회 사역자들과 다코타, 미네소타, 그리고 몬태나에서 1000명이 넘는 회원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버그(A.A.E.Berg) 아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회들은 1954년에 연합했습니다. 헵시바 믿음 선교협회의 남아프리카 사역과 아이오와, 타보(Tabor)에 있는 그 센터는 1950년에 교단과 연합했습니다.

1907년, 데이비드 토마스에 의해 런던에서 창립된 국제성결선교회는 데이비드 존스 지도 아래 남부 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한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맥클래간(J.B. Maclagan) 아래 영국교회들과 아프리카 사역은 1952년에 나사렛사람들과 연합했습니다. 메이나드 제임스와 잭 포드는 1934년에 영국에서 갈보리성결교회를 조직했고 1955년 나사렛사람들과 연합했습니다. 프랭크 고프에 의해 1918년에 조직된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복음사역자들의 교회는 1958년에 나사렛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1940년대에 토착적인 나사렛교회를 형성했고, 제레미아 엑아이템

(Jeremiah Ekaidem) 아래 1988년에 국제적인 단체에 연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입들은 나사렛교회의 국제적 특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발전의 관점에서, 나사렛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개신교 표준으로부터 차별화된 교회의 유형을 개발했습니다. 1976년에, 연구위원회는 교단 미래의 모습을 검토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 보고에서 중앙총회는 의도적으로 두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화정책을 채택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교회들과 연회들은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내에서 신앙인들의 세계적인 교제를 제정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교회의 독특한 사명, 즉, 나사렛정체성을 표현하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로서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헌신을 확인했습니다.

1980년 중앙총회는 신조에 관한 국제적인 신학적 통일을 수용했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각 세계지역에서 신학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강자와 약자, 주는 자와 받는 자란 용어들 속에서 백성들과 나라를 평가했던 식민주적 사관에 세계를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 즉 모든 동역자들의 장점들과 동등성을 인정하고 생각하도록 길을 여는 단 하나의 연결하는 구조 안에서 국제성결공동체로서 나사렛사람들을 성숙으로 호출했습니다.¹⁾

결과적으로, 나사렛교회는 개신교 사이에서 독특한 성장유형을 가져왔습니다. 1998년까지, 나사렛사람들의 절반은 더 이상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지 않았고, 2001년 중앙총회 대의원의 41% 대의원이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말하거나 전혀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 베르디의 아프리카인, 유진니오 드와트(Eugenio Duarte)는 2009년에 중앙감독들 중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국제사역의 독특성

나사렛의 전략적인 사역들은 역사적으로 복음전파, 사회사역, 그리고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것들은 각 문화를 존중함 속에서 웨슬리안 원리들을 토착화했던 비교 문화적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레이놀드(Hiram F. Reynolds)는 나사렛의 비교 문화적 사역들을 설립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교단적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전략적이었습니다. 중앙감독으로서 25년 동안, 그의 지속적인 지지는 선교가 교단의 우선권임을 고양하도록 도왔습니다.

1915년까지, 나사렛국제선교회(원래는 여선교회)는 모금운동을 했고, 회중들에게 세계에 대한 선교교육을 독려했습니다.

초기 나사렛사람들은 긍휼한 사람들이었고 인도의 기근을 구제하는 후원과 고아원을 설립하고 미혼모와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중독과 노숙자들을 돌보는 도심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1920년대에 교회의 사회사역에 대한 우선권은 중국과 스와질란드에, 나중에 인도와 파푸아뉴기니에 병원들을 세우는 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나사렛의 의료전문가들은 병든 자를 돌보았고, 수술을 집도했으며, 간호사들을 훈련시켰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이동 보건소를 운영 후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센병과 같은 전문의 병원들도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나사렛공화국사역의 창안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어린이후원, 재난구조, 에이즈 교육, 고아후원, 물 프로젝트, 그리고 음식보급 등을 포함하는 폭 넓은 사회사역들을 관장했습니다.

나사렛주일학교와 성경공부는 항상 회중의 삶의 일부가 되어왔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캘커타에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희망학교가 1905년 창설된 이래로 기초적인 교육과 문맹퇴치에 투자해왔습니다. 나사렛학교들은 세계 전역에서 사회,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삶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초기 나사렛대학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들이었고, 20세기 중반까지 고등학교들이 부속되어있었습니다.

나사렛설립자들은 목회자와 다른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평신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고등교육에 상당부분 투자했습니다. 국제교육위원회는 아프리카, 브라질, 캐나다, 캐리비안,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문학 대학들과 대학교들을 포함하고, 성경대학들과 학원들, 인도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간호대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타리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들을 더한 세계 전역에 있는 나사렛고등교육 기관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교회는 국제적인 현존이 있었던 하나의 교회로부터 믿는 자들의 지구촌공동체로 시간에 걸쳐 움직여왔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에 근거해서 나사렛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며, 성결의 사람들이며, 그리고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열방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기 위한” 사명선언을 포용해왔습니다.

나사렛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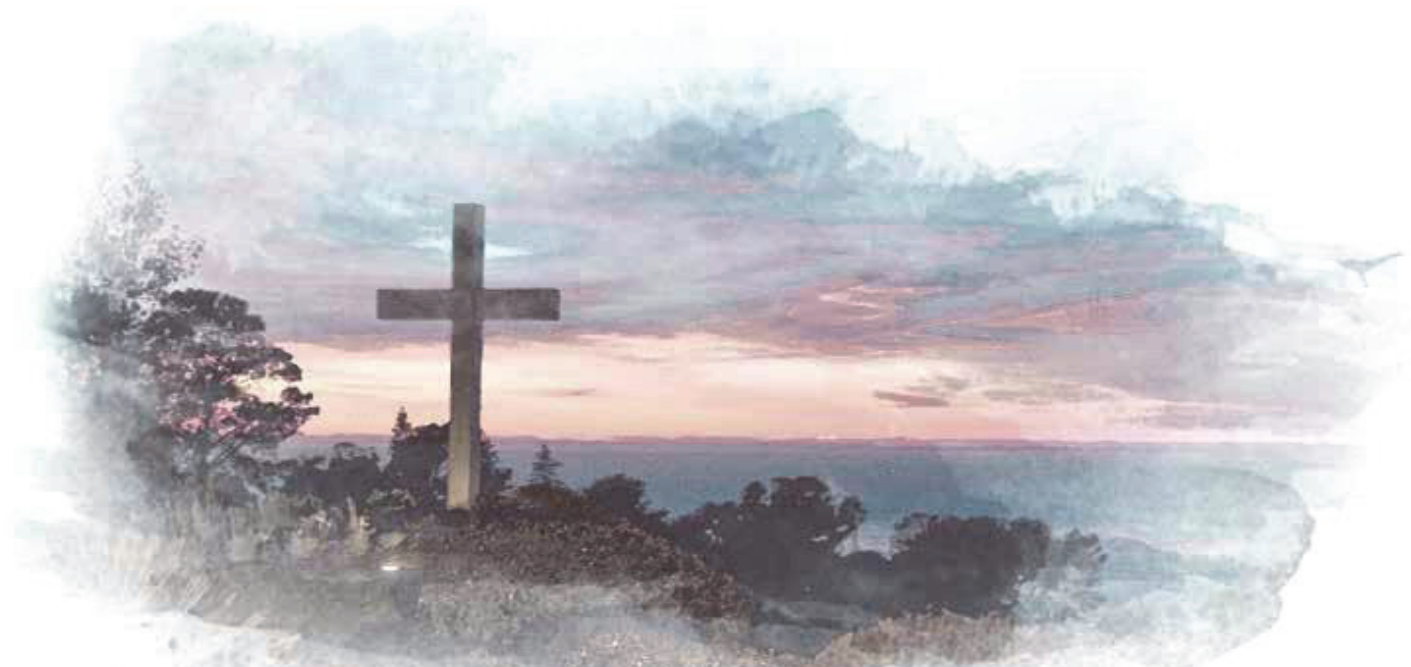
사명은

열방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사렛교회의 핵심가치

1.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되심을 선포하는 것과 역사적인 삼위일체 신조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에 모든 참된 성도들과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안 성결의 유업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이 말씀, 이성, 전통, 경험에 비추어 진실한 믿음을 이해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며 관계를 회복시켜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화목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았음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함께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이 이성과 전통과 경험에 의하여 입증된 영적진리의 최고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이십니다. 니케아 신조와 같이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사함을 베푸시며 세상을 화목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

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화목케 됨으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주며 화목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이며,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연합됨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써 우리는 “주도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임을 확실히 믿으며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에베소서 4:5,3)

2.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추구하시는 것은 “완전성결”과 “성령세례” 또는 그 외에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장과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성결이란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말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심장과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두 번째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온전히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고 믿음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죄를 밝히시고, 죄를 깨끗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명령 받았습니 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44)

3. 우리는 선교사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반응하여 성령님의 감화되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28:19-20, 고후6:1). 우리의 사명은 ①예배로 시작해서 ②전도와 자비로 세상을 섬기며 ③제자화 사역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④기독교 고등 교육을 통하여 남녀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A. 예배의 사명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고, 말씀의 낭독을 듣고, 우리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하는 회중을 통하여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의 교제 속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예배 모임을 만드는 것이 포함됨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예배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한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경험이나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B. 자비와 전도에 대한 사명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상한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또는 두계명, 마22:36-40)과 지상명령(마 28:19-20)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전도와 자비사역과 공의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불의에 맞서고, 억압당하는 사람을 돕고, 주님의 창조하신 자원을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으로 교제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습시다.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스토리입니다. 교회는 복음전도와 자비와 공의를 통하여 사랑과 화해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토록 세워졌습니다.

C. 제자 삼는 사명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여 우리는 주일학교, 성경공부, 소그룹 등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 간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화”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져 간다는 뜻이 포함됨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상호 협력과,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랑의 책임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우리에게 서로를 허락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삼는 사명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 됨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배우고, 믿음의 훈련에 따르고, 상호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제자로서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제자화라는 것은 단순히 법과 규칙에 따르는 인간의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제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고후3:18).

D. 우리의 고등 교육에 대한 사명

우리는 남녀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기독교 교육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학대학원에서, 성경학교에서,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계발하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고등교육은 나사렛교회의 중심적인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나사렛교회의 초기에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은 남녀를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웨슬리안 성결 부흥운동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고등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은 신학대학원과, 성경학교와,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와서 기쁘다 우리 구주를

찬양합시다.

구원의 반석이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칩시다.



사명

나사렛교회의 사명은 열방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곳에 전해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사는) 성서적 성결의 메시지를 온 땅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나누고, 예배와 설교와 훈련과 서로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신앙을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핵심내용은 우리의 사명의 역사적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도, 성결, 제자 훈련, 공훈사역입니다. 성결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나사렛교인은 보내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어진 사람들이란 가정으로, 일터로, 공동체로, 마을로 도시로 각 나라로 보내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세계의 모든 지구에서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사렛교인의 특성

2013년 중앙총회에서 중앙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나사렛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1. 의미 있는 예배
2. 신학적 부합성
3. 열정적인 전도
4. 의도적인 제자훈련
5. 교회발전
6. 변혁적 리더십
7. 긍휼목적사역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사명 즉 “열방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일” 혹은 우리의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인, 성결, 선교”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나사렛교회가 믿고 있는 특성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으며 어디서든지 나사렛교회의 특성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강조하고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지구촌 교회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탐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의미있는 예배

예배의 부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유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 시편 95:1-7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를 우리 구원의 반석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청지기로 인정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A.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았으며 이러한 관계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예수께서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마태복음 10장)
- 예수께서 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이 되었습니다.
- 그들은 화해의 메시지와 함께 화해의 사역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11-21).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므로 우리를 통해서 그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시나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고 바울이 말씀하셨다(고린도후서 5:20-21).

B.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 19-20).

초대교회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확산을 시도하였습니다. 행 13:1-4

C. *의미 있는 예배*는 금식이나 기도와 같은 성령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천됩니다.

- 성령은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십니다.
- 이것은 예배의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주십니다.
- 예배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재교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자들을 예수의 성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어가기 긴급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 우리는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D. *의미 있는 예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 초대교회는 위원회나 세미나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습다.
- 오히려, 그들은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자주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유롭게 사역하시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의제를 기꺼이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안에서 그의 의제를 완성하도록 시간을 허락해야만 합니다.
- 의미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움직이도록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그 자신의 방식과 시간 일정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움직이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도록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켜가신다는 열렬한 기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 하나님의 자녀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활성화된 인간의 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것은 의미 있는 공동의 예배시간에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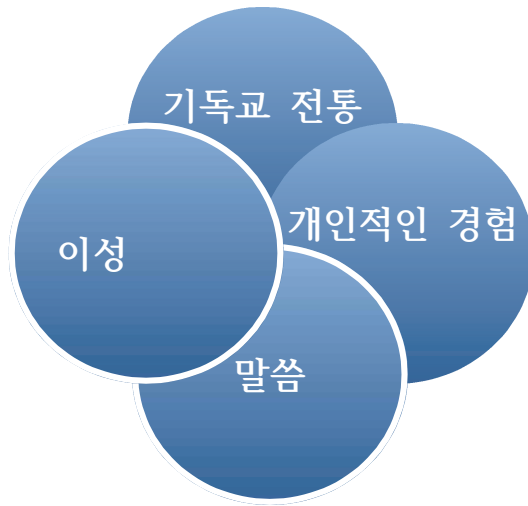
2. 신학적 일관성

C. 우리 나사렛교단의 소리는 더 광범위한 기독교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 그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우리를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로 행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D. 이것은 신학적인 일관성을 위한 원천입니다.

-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말씀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 기독교 전통: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을 통해서 2000년의 역사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 이성: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 개인적인 경험: 우리는 우리 개인들과 예수를 따른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신학적 일관성을 위한 원천들

E.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줍니다.

•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통적인 신조와 기독교교회의 전통을 고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는 개신교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총에 의해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위치에 놓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음을 확증하며, 교회의 설교대를 교회의 중앙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이 예수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도록 예수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증언자가 됨을 믿습니다.

•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학이 기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요한일서 4:8).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더 깊은 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인간을 찾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충분한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죄의 힘을 파괴하는 은총과 그리스도인을 죄인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움과 성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며 예수의 보혈이 과거의 죄를 사하시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그의 자녀들에게 삶의 여정마다 인도함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믿습니다.

D. 우리는 거룩한 삶의 4가지 측면을 믿습니다.

-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감—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1).
- 삶의 형태—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 하시도록 하는 성스러운 목적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5-17).

- 시험과 선택할 힘-육체와 악에 중독되거나 그들의 제안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으로 성스러운 삶을 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18-20).
-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18).

E. 우리는 중용을 믿습니다- 중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극단성을 피하기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극단성이 지니는 특별성에 덜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중도에 대한 균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3. 열정적 전도

열정적 전도는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사렛 교회는 열정적 전도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적 전도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나사렛 교단 초대 중앙 감독인 피니어스 브리지 박사는 전도를 요청하며 “우리는 복음을 받은 만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빛을 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 구원의 믿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집중합니다.

A. 열정적 전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6-38).

-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35).

B. *열정적 전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 “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46-47).

C. *열정적 전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24:14).
-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D. *열정적 전도*를 위해 성령께서 능력 주십니다.

- 성령님은 우리가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증거하도록 능력 주십니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E. *열정적 전도*는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분명하고 생산적입니다.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22-25).

F. *열정적 전도*는 개인과 교회에 새 생명과 에너지를 줍니다.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7)

G. 열정적 전도는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놀라운 증거 중 하나는 바울의 삶입니다.
- 자기 간증의 하나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 . .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4-16).

H.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은 대 명령을 준행하는 시작점입니다. (마태복음28:19-20)
 - 우리의 훈련과 준비는 다음을 수반합니다.

-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 결과로 기술과 방법에서 재능이 덜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는 열정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결연히 전해야 합니다.

I. 열정적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공부한 후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남녀노소의 마음에 말합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누가복음 20:1상).

J. 열정적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도록 촉진합니다.

- 전도는 우리의 정체와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삶을 위한 우리의 열정은 전도를 위한 열정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살고자 선택함으로 우리는 전도하고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 전도는 우리가 아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치료받은 시각 장애인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단순하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25).
- 전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10:8하).

K. **열정적 전도**는 우리가 제자 삼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 우리는 삶의 여행 동안 믿음의 걸음을 나누며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에 개인적 간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L. **열정적 전도**는 우리의 창의성에 영감을 줍니다

- 도구—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 영화, 전도 공(Evangeball), 전도 6면체(Evangelcube)가 있습니다.
- 방법—많은 방법들, 한 메시지.
- 전략—대중 전도, 친구 및 개인전도, 소그룹, 도시 등

**우리는 복음을 받은 만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빛을 쬐습니다.**

-피니어스 브리지

4. **의도적 제자도**

D.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 삼도록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
-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도적**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같이 자라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2:30, 요한복음 15, 누가복음 9).

- *의도적이고 관계적인* 제자도는 예수님과 순종적인 친밀한 관계를 계발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새 신자들의 가치를 왕국 가치로 바꾸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명에 헌신하도록 해 주십니다.

E.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 믿음의 여정은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용서로 시작됩니다.
- 그리스도 안의 이 새로운 피조물은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중생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의 방식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게 합니다.
- 우리는 새 신자들을 처음부터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며 믿음의 공동체로 즉시 양육합니다. 그들은 제자 삼는 사람이 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제자도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도록 돕는 일을 포함합니다.

의도적이고 관계적인 제자도는 예수님과 순종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계발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새 신자들의 가치를 왕국 가치로 바꾸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명에 헌신하도록 해 주십니다.

C. 우리는 강력한 강단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의도적으로* 계발합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 교육적인 설교를 합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성경에 기초한 설교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해 더 갈망하고 자라도록 양육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제자도 노력의 토대가 되게 합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일년의 모든 기간에 걸쳐 균형 잡힌 성경적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힘씁니다.
- 우리의 목사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식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활성화 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지합니다.
-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셨고 자기 제자들을 소그룹에서 정성 들여 가르치셨습니다.
-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비유(이야기)를 들지 않고는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34).

D.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주일 학교를 장려합니다.

-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성경을 설명하고 삶 속에 성경을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칩니다.
-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젊은 신자들이 교실 밖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물을 때에도 대답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늘 유지합니다.
- 우리의 주일학교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광범위하고 연속성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E. 우리는 책임을 장려하는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합니다.

- 소그룹 성경공부는 새신자들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모두에게 그룹과 일대일 책임을 부여합니다.
- 소그룹에서는 건강한 관계가 계발되어 일상적 만남을 넘어 친구들과 삶의 방식으로써 연결되게 합니다.

- 이 공부 그룹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는데 본질적 요소인 성경공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 작은 제자도 그룹은 주일을 넘어 삶의 도움 체계로 계발됩니다.

F. 우리는 잘 균형 잡힌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 성경 퀴즈 프로그램
- 캐러밴 어린이 사역(Caravan Children's Ministry).
- 방학 성경학교
- 성탄절 및 부활절 구제 프로그램
- 공휴일 사역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자도 사역
- 남자와, 여자, 노인 또는 성인, 독신자,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 스포츠 팀, 다양한 종류의 동질그룹을 위한 사역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권장됩니다.

G.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개인적 신앙 성숙과 발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경을 도움 자료와 함께 읽기, 오디오 파일로 성경을 듣기
- 매일 기도
- 기독교 음악 듣기
- 기독교 서적 읽기
-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매일 기도해 주는 책임 동역자를 구하기
-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어려운 요구도 할 수 있는 책임 동역자를 구하기
-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계발하기

H. 우리는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 구하는 것을 배우기를 권고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라고 묘사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도적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낼 때 그리스도를 닮는 상태로 가장 잘 자랍니다.
-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기쁨으로 경험합니다.
-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그분을 의도적으로 찾으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닮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것은 교회 안의 역동적 제자도를 특징짓습니다.

I. 우리는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제자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 주님께서 제자 삼도록 명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제자 삼거나 멘토 역할을 하도록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 우리는 신자들의 소그룹이 우리 제자도 그룹의 일부가 되도록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이 제자들에게 투자합니다.
- 소그룹에서 이야기 중심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이 성경을 배우고 자신들의 영향권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확고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닮도록 *의도적으로* 돕는 것은 교회 안의 역동적 제자도를 특징짓습니다.

5. 교회 성장

A. 교회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합니다.

- 초기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한 최초의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짐에 따라 신앙 공동체의 성장과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행 13-14).

B. 바울은 교회 개척의 계획을 갖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는데 성령은 그의 여행 경로를 변경하셨습니다(행 16).

-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수용적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 바울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타인이나 지역사회 조사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우리의 비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 바울은 사람에 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전략과 전술, 구호와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우리의 비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요로 한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이 분명히 맞추어져야 합니다.
-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에 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정 지역, 문화, 언어, 역사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특정 종족 또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 바울은 서있던 마케도니아 사람에 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보다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될 대상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바울은 “우리에게 와서 도와라!”고 서서 외치던 마케도니아 사람에 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 외침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추진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웃, 도시, 종족, 부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야만 합니다.

C.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바울은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 마케도니아 사람은 여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가장 수용적이었던 사람은 다름아닌 빌립보의 루디아였습니다.
- 강독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인들은 바울의 전도에 가장 수용적인 청중이었습니다.
- 과거처럼 유대교 회당을 이용하는 대신 바울은 한 가정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 자주 옷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루디아가 이 가정교회를 이끌었습니다
- *교회 성장*에 관한 전략은 반드시 과거에 입증된 방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D. 교회 개척은 심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 바울과 실라는 선교 과정에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행 16:35).
- 오늘날에도 교회 개척을 할 때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동일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 개척은 기도와 눈물, 노고와 재정, 때때로 순교까지 필요로 합니다.
- 바울과 실라의 고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목회자로 한 새로운 가정교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E.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각해야 합니다.

- 바울과 실라는 투옥과 고초를 결코 실패로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의 영을 감지했습니다.
-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 •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 빌립보 감옥을 강타한 지진은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행 16:25-26). 우리의 사역이 암초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십니다.

-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은 경이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에 관여하실 것입니다. 악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적하지만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나사렛교회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제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영적 양육과 예배와 교육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실행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룹은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하며, 나사렛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에 합당한 사역이어야 하고, 연회에서 인준되고, 중앙총회(중앙감독회)에 통계보고가 있어야 나사렛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빌딩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F. 교회사를 통틀어 *교회 성장*에 관한 전략은 변화해 왔습니다.

- 교회사 초기 400년 동안 교회는 그 어떤 교회 건축물도 세우지 않았습니 다.
- 현당된 교회 건물과 부지 그리고 교회 전임 사역자에 관한 개념은 후대에 생겨났습니다.
- 오늘날 성령은 교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하고 계십니다.
- 성령은 각각의 교회가 또 다른 지교회를 설립하도록 이끄십니다.
- 이들 지교회는 가정이나 여타 가용 장소에서 모입니다.
- 각각의 목회자는 목회자 훈련 과정에 있는 이중직업적 목회자의 멘토가 됩 니다.
- 이와 같은 모델에 따르면 특별한 재정지원 없이 지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새로운 교회의 설립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신도가 반응하 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이 모델을 통해 하나님은 전세계 새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 키십니다. 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채 하나님 의 소명과 인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수용적 마음입니다.

G. *교회 성장*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4:43).
- 우리는 *교회 성장*에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 우리의 노력은 인적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길 원합니다.
-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4:35).

6. 변혁적 리더십

A.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본이 되십니다.

변혁적 리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리더입니다.

B. *변혁적 리더*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 그들은 성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빌 2:5-8).
- 그들은 기도예 응답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요 15:7).
- 그들은 타인의 권위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춥니다(엡 5:21).

C. 변혁적 리더들은 종이다.

- 그들은 군림이 아닌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릅니다(막 10:45; 마 20:28).
- 그들은 섬김의 정신과 태도로 이끕니다(빌 2).

D. 변혁적 리더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잠 29:18).
-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합 2:2).
-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 비전은 리더와 추종자 사이를 구별 짓는 요소입니다. 전자는 신앙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고 후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E. 변혁적 리더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들은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 그들은 잇사갈 자손처럼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합니다(대상 12:32)
-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꿈꿉니다.
- 그들은 비전을 행동 단계로 전이시킨 후 신자들을 추수할 밭으로 동원합니다.
- 그들은 비전과 사명을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계획으로 단계화시킬 수 있습니다(눅 14:28-30).

F. 변혁적 리더들은 팀을 세웁니다.

-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하는 대신 팀을 세운 후 팀원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마 10).
-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으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행 17:6).
- *변혁적 리더*들은 교회의 모든 회중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팀을 세워나갑니다.

G. *변혁적 리더*들은 단호하지만 동시에 공혈적입니다.

-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마 10:16).
- *변혁적 리더*들은 성결의 정신 하에 은혜와 율법, 정의와 자비 사이의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 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그러나 그들의 결정에는 공혈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 그들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엡 4:15).

H. *변혁적 리더*들은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마 13:43). 그는 추종자들이 끈기를 갖고 경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변혁적 리더*들은 예수님처럼 간단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변혁적 리더*들은 분명하고 일관되고 매력적인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고전 14:8).

I. *변혁적 리더*들은 추종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차세대 일꾼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 여호수아는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세대만을 이끌었습니다(삿 2:10).

- *변혁적 리더*들은 자신의 리더십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와 다음 세대를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 그들은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 나갈 멘토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차세대 리더십 훈련을 위임합니다.
- 리더십 계승이 없는 리더십은 성공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7. 의도적인 공훈

A. 의도적인 공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 성자를 세상에 보내심과 인류를 위한 성자의 죽으심은 사랑과 공훈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 요한복음 3:16-17은 하나님이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요한일서 3:16-17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한 신자들의 참된 공훈의 행위 안에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은 그리스도가 타인과 세상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셨음을 보여줍니다(마 9:36).

B. 의도적인 공훈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 예수님은 공훈에 관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치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인류와 “함께 겪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특히 가난하고, 병약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과 공훈을 보이셨습니다.
-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랑에 대한 모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면에서 섬기고 관대하며 자비를 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력을 합니다.

C. *의도적인 긍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 사랑, 도움을 제공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키는 것만이 긍휼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D. *의도적인 긍휼*은 변화된 신자로부터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서 구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 긍휼 사역은 인위적 노력이나 사회적 행동주의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긍휼에 대한 소명은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통전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 물리적, 사회적, 영적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 긍휼은 모든 회중의 삶과 사역에서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E. *의도적인 긍휼*은 통전적 선교에 대한 우리 웨슬리안적 정의입니다.

- 우리는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 능력을 부여 받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 우리는 성부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각 사람의 삶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선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 참된 전도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헌신과 희생을 수반합니다.
-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소외와 결핍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치유와 희망과 평강과 사랑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상호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것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확장시키십니다.

F. 의도적인 긍휼은 깨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표시로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깨지고 상처받은 인류를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확보, 활용하여 인간 고통을 경감시키면서 회복, 온전, 구원,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실현해 나갑니다.
- 우리는 사람에 대한 압제와 구조적 악을 순화적으로 야기하는 불의의 사회 제도를 바로잡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 우리는 주님의 선교를 완성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미 6:8).

웨슬리안 신학

변화시키는 은혜의 기적

“은총은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다.”는 말에는 놀라운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찬송가 가사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셨고, 결정적으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요 3:15-16; 롬 1:1-16).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롬 3:25). 모든 창조주님은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나타났습니다(롬 3:21). 하나님으로부터 절망적으로 소외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엡 1:5-2:10).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모든 세력들은 그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골 2:15).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롬 3:22),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롬 8:2)!

신약성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게 합니다(엡 1:6-10).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골 2:8-15). 하나님의 은총의 유익함을 해석한 후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롬 11:33)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의 내용은 죄의 용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평화, 성화, 교회의 친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신과 자유롭게 화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관원이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음으로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좋으신 역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기 오래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하

고 계셨습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시 19:3). 바울은 순간마다 모든 창조세계의 존재가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골 1:15-17). 요한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요 1:9).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성에 의한 방법으로 성령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역사적으로 복음을 향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이 명료하게 선포되기 전에 역사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준비하고 희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역사하십니다.

거꾸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기독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패턴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예비적 역사를 “선행은총” 혹은 먼저 베풀어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모든 창조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있습니다(롬 8:19-25).

칭의란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과 화해하신 은혜로운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칭의는 -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로 돌아온 것이며 - 오진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유익함은 하나님의 영이 회개한 죄인 안에 실제로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롭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영적생명을 새롭게 실현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 신생, 위로부터 탄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입성, 새로운 삶의 걸음, 성령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부르든지 간에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리스도인 안에 실제로 거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때는 죽음이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이 있고; 전쟁이 있었으나, 평화가 있으며; 절망이 있었으나,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고후 5:17-18a)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해가 된 것이고(롬 8:1), 회개한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킨 그

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영광의 소망”(골 1:27)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과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의 삶을 일구어주십니다(갈 5:22-23).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종류의 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옛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나의 삶의 패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더 좋은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즉 무덤, 죄, 지옥,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만들고, 부활시킨 힘과 같은 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엡1:19)! 한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롬 8:2)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즐거운 규범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롬 8:1-8).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총의 기적을 경험하신적이 있습니까?

“The Miracle of Transforming Grace” essay taken from, The Reflecting God Study Bible © 2000. Bible copyright by The Zondervan Corporation and Essay by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Used by permission of Publisher. All rights reserved.

신 조

서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과 특히 은혜의 두 번째 역사인 온전 성결교리와 체험을 보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의 다른 교파와 효율적으로 협조합니다. 우리 나사렛성결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이미 제정된 헌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나사렛성결교회의 기본법 또는 헌법으로서 신조와 그리스도인의 일반 규약, 그리고 조직 및 통치기구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채택하여 공포합니다.

제1절 삼위일체의 하나님

1. 우리는 한 분이시며 영원히 계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권적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목적하심에 있어서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랑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은 본질상 삼위일체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창 1; 레 19 : 2; 신 6 : 4-5; 사 5 : 16; 6 : 1-7; 40 : 18-31; 마 3 : 16-17; 28 : 19-20; 요 14 : 6-27; 고전 8 : 6; 고후 13 : 14; 갈 4 : 4-6; 엡 2 : 13-18)주1)

주1) 참조성경구절은 신조를 뒷받침하며 1976년 중앙총회의 결정으로 삽입되었다. 그러나 교회헌법의 본문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제2절 예수 그리스도

2.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더불어 영원히 계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두 완전한 본성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합하여 한 인격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지요, 참 인간으로서 신인(神人)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몸을 갖고 진정으로 살아나셨으며, 인간의 완전한 본성을 갖추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마 1 : 20-25; 16 : 15-16; 눅 1 : 26-35; 요 1 : 1-18; 행 2 : 22-36; 롬 8 : 3,

32-34; 갈 4 : 4-5; 빌 2 : 5-11; 골 1 : 12-22; 딤편 6 : 14-16; 히 1 : 1-5; 7 : 22-28; 9 : 24-28; 요일 1 : 1-3; 4 : 2-3, 15)

제3절 성령

3.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격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언제나 현존하시고 능률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신자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요 7 : 39; 14 : 15-18, 26; 16 : 7-15; 행 2 : 33; 15 : 8-9; 롬 8 : 1-27 갈 3 : 1-14; 4 : 6; 엡 3 : 14-21; 살전 4 : 7-8; 살후 2 : 13; 벰전 1 : 2; 요일 3 : 24; 4 : 13)

제4절 성경

4. 우리는 성경의 완전영감을 믿습니다. 이로써 친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일체 오류 없이 계시해 주시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신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눅 24 : 44-47; 요 10 : 35; 고전 15 : 3-4; 딤후 3 : 15-17; 벰전 1 : 10-12; 벰후 1 : 20-21)

제5절 죄, 원죄와 개인적인 죄

5. 우리는 죄가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가 사망을 초래하였음을 믿습니다. 죄는 두 종류 즉 원죄 또는 타락성과 실제적인 죄 또는 개인적인 죄가 있음을 믿습니다.

5.1. 우리는 원죄 혹은 타락성이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이 부패된 것으로 믿으며, 그로인해서 모든 사람이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그리고 처음 조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순결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영적 생명을 상실하여 악에 치우칠 뿐 아니라, 계속하여 악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세례에 의하여 마음이 모두 정결해질 때까지 중생을 얻은 자의 새 생명 속에도 원죄가 계속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5.2. 우리는 원죄가 실제적인 죄와 다른 것을 믿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유전된 경향성으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자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믿습니다.

5.3. 우리는 실제적인 죄 혹은 개인적인 죄란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알려진 법을 자의로 거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죄는 인간의 불가피한 부족함, 연약성, 과오, 실수, 실패, 또는 시조 타락의 결과로 인해 완전한 행위에 미치지 못하는 기타 행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무고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역하는 자세나 태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죄란 우선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랑의 법에 대한 거역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정의됨을 믿습니다.

원죄

(창 3 : 6 : 5; 욥 15 : 14; 시 51 : 5; 렘 17 : 9-10; 막 7 : 21-23; 롬 1 : 18-25; 5 : 12-14; 7 : 1-8 : 9; 고전 3 : 1-4; 갈 5 : 16-25; 요일 1 : 7-8)

개인적인 죄

(마 22 : 36-40(요일 3 : 4 포함) ; 요 8 : 34-36; 16 : 8-9; 롬 3 : 23; 6 : 15-23; 8 : 18-24; 14 : 23; 요일 1 : 9-2 : 4; 3 : 7-10)

제6절 속죄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과, 이 속죄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아담의 모든 후손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속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와 죄의 분별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은혜로 유효하나, 책임 연령에 도달한 자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에만 유효함을 믿습니다.

(사 53 : 5-6, 11; 막 10 : 45; 눅 24 : 46-48; 요 1 : 29; 3 : 14-17; 행 4 : 10-12; 롬 3 : 21-26; 4 : 17-25; 5 : 6-21; 고전 6 : 20; 고후 5 : 14-21; 갈 1 : 3-4; 3 : 13-14; 골 1 : 19-23; 딤후 2 : 3-6; 딤후 2 : 11-14; 히 2 : 9; 9 : 11-14; 13 : 12; 벧전 1 : 18-21; 2 : 19-25; 요일 2 : 1-2)

제7절 선행은총

7.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옳고 그릇됨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음을 믿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되었고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공로로 돌이켜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

님을 믿고 간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 은혜는 죄로부터 떠나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죄를 용서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선한 일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이나 온전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신앙을 저버릴 수 있으며,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및 도덕적 책임

(창 1 : 26-27; 2 : 16-17; 신 28 : 1-2; 30 : 19; 수 24 : 15; 시 8 : 3-5; 사 1 : 8-10; 렘 31 : 29-30; 겔 18 : 1-4; 미 6 : 8; 롬 1 : 19-20; 2 : 1-16; 14 : 7-12; 갈 6 : 7-8)

본연의 무능력

(욥 14 : 4; 15 : 14; 시 14 : 1-4; 51 : 5; 요 3 : 6a; 롬 3 : 10-12; 5 : 12-14, 20a; 7 : 14-25)

무상은총 및 믿음의 역사

(겔 18 : 25-26; 요 1 : 12-13; 3 : 6b; Acts 5 : 31; 롬 5 : 6-8, 18; 6 : 15-16, 23; 10 : 6-8; 11 : 22; 고전 2 : 9-14; 10 : 1-12; 고후 5 : 18-19; 갈 5 : 6; 엡 2 : 8-10; 빌 2 : 12-13; 골 1 : 21-23; 딤후 4 : 10a; 딤펴 2 : 11-14; 히 2 : 1-3; 3 : 12-15; 6 : 4-6; 10 : 26-31; 약 2 : 18-22; 벧후 1 : 10-11; 2 : 20-22)

제8절 회개

8. 회개란 죄에 관해서 진심으로 철저한 마음의 변화로서, 개인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의 자발적인 전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나 고의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회개하도록 요구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도와 마음 속 깊이 참회하게 하고 자비의 은총을 소망하게 함으로써 용서와 영적 생명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하 7 : 14; 시 32 : 5-6; 51 : 1-17; 사 55 : 6-7; 렘 3 : 12-14; 겔 18 : 30-32; 33 : 14-16; 막 1 : 14-15; 눅 3 : 1-14; 13 : 1-5; 18 : 9-14; 행 2 : 38; 3 : 19; 5 : 31; 17 : 30-31; 26 : 16-18; 롬 2 : 4; 고후 7 : 8-11; 살전 1 : 9; 벧후 3 : 9)

제9절 칭의, 중생, 양자

9. 우리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법적인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범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를 의롭다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9.1. 우리는 중생 혹은 신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회개한 신자의 도덕적 본성이 영적으로 소생하여 뚜렷한 영적인 생명을 얻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9.2.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의롭게 되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9.3. 우리는 칭의, 중생, 양자 됨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체험에 있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회개 후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나며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 하심을 믿습니다.

(눅 18 : 14; 요 1 : 12-13; 3 : 3-8; 5:24; 행 13 : 39; 롬 1 : 17; 3 : 21-26, 28; 4 : 5-9, 17-25; 5 : 1, 16-19; 6 : 4; 7 : 6; 8 : 1, 15-17; 고전 1 : 30; 6 : 11; 고후 5 : 17-21; 갈 2 : 16-21; 3 : 1-14, 26; 4 : 4-7; 엡 1 : 6-7; 2 : 1, 4-5; 빌 3 : 3-9; 골 2 : 13; 딤후 3 : 4-7; 벧전 1 : 23; 요일 1 : 9; 3 : 1-2, 9; 4 : 7; 5 : 1, 9-13, 18)

제10절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온전성결

10. 우리는 성결이란 신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결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초기성결, 중생(칭의와 동시에 일어남), 온전성결, 그리고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영화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전성결이란 중생한 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원죄 또는 타락성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또 사랑의 거룩한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성결이란 성령세례 혹은 성령의 채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 번의 체

힘에서 죄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며 현존하시고, 믿는 자의 삶과 섬김을 위해 능력주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온전성결은 예수의 보혈로 제공된 것이며, 온전한 성별이 있는 후,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의 역사와 상태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체험은 또한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마음의 정결,” “성령의 세례,” “축복의 충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같은 여러 용어로 표현됩니다.

10.1. 우리는 순수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자는 완전성결의 결과로써 순간적으로 얻어지며, 후자는 은혜 속의 성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온전성결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는 성스러운 충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충동은 의식적으로 양육되어야 하지만,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및 개선의 조건과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도적 노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가 손상되고 은혜 자체가 좌절되어 마침내 잃어 버려집니다.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면서, 특히 친교, 제자훈련, 교회의 성례전을 통해서, 신자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전적인 사랑 안에서 성장합니다.

(렘 31 : 31-34; 겔 36 : 25-27; 말 3 : 2-3; 마 3 : 11-12; 눅 3 : 16-17; 요 7 : 37-39; 14 : 15-23; 17 : 6-20; 행 1 : 5; 2 : 1-4; 15 : 8-9; 롬 6 : 11-13, 19; 8 : 1-4, 8-14; 12 : 1-2; 고후 6 : 14-7 : 1; 갈 2 : 20; 5 : 16-25; 엡 3 : 14-21; 5 : 17-18, 25-27; 빌 3 : 10-15; 골 3 : 1-17; 살전 5 : 23-24; 히 4 : 9-11; 10 : 10-17; 12 : 1-2; 13 : 12; 요일 1 : 7, 9)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한 사랑

(신 30 : 6; 마 5 : 43-48; 22 : 37-40; 롬 12 : 9-21; 13 : 8-10; 고전 13; 빌 3 : 10-15; 히 6 : 1; 요일 4 : 17-18)

마음의 정결

(마 5 : 8; 행 15 : 8-9; 벧전 1 : 22; 요일 3 : 3)

성령의 세례

(렘 31 : 31-34; 겔 36 : 25-27; 말 3 : 2-3; 마 3 : 11-12; 눅 3 : 16-17; 행 1 :

5; 2 : 1-4; 15 : 8-9)

축복의 증만

(롬 15 : 29)

그리스도인의 거룩

(마 5 : 1-7 : 29; 요 15 : 1-11; 롬 12 : 1-15 : 3; 고후 7 : 1; 엡 4 : 17-5 : 20; 빌 1 : 9-11; 3 : 12-15; 골 2 : 20-3 : 17; 살전 3 : 13; 4 : 7-8; 5 : 23; 딤후 2 : 19-22; 히 10 : 19-25; 12 : 14; 13 : 20-21; 벧전 1 : 15-16; 벧후 1 : 1-11; 3 : 18; 유 20-21)

제11절 교회

11.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하여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성령 안에서의 일치와 교제, 말씀 전파와 성례전 집행 및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상호 책임 이행을 통하여 그 생활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해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긍휼을 나타내고, 정의를 위한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사명을 완성합니다.

교회는 역사적 실체로서 문화적 조건에 맞추어 조직되고, 개교회 회중이면서 우주적인 몸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소명 받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특별 사역에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그의 통치 하에 생활하도록 부르십니다.

(출 19 : 3; 렘 31 : 33; 마 8 : 11; 10 : 7; 16 : 13-19, 24; 18 : 15-20; 28 : 19-20; 요 17 : 14-26; 20 : 21-23; 행 1 : 7-8; 2 : 32-47; 6 : 1-2; 13 : 1; 14 : 23; 롬 2 : 28-29; 4 : 16; 10 : 9-15; 11 : 13-32; 12 : 1-8; 15 : 1-3; 고전 3 : 5-9; 7 : 17; 11 : 1, 17-33; 12 : 3, 12-31; 14 : 26-40; 고후 5 : 11-6 : 1; 갈 5 : 6, 13-14; 6 : 1-5, 15; 엡 4 : 1-17; 5 : 25-27; 빌 2 : 1-16; 살전 4 : 1-12; 딤후 4 : 13; 히 10 : 19-25; 벧전 1 : 1-2, 13; 2 : 4-12, 21; 4 : 1-2, 10-11; 요일 4 : 17; 유 24; 계 5 : 9-10)

제12절 세례

12.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한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유익함을 받아들이는 표시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과 거룩과 공의 안에서 순종할 전적 의사를 진술하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례는 새 언약의 상징이므로 필요한 기독교적 훈련을 아이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언약이 있을 때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례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점수례(點水禮), 주수례(注水禮), 침수례(浸水禮) 등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마 3 : 1-7; 28 : 16-20; 행 2 : 37-41; 8 : 35-39; 10 : 44-48; 16 : 29-34; 19 : 1-6; 롬 6 : 3-4; 갈 3 : 26-28; 골 2 : 12; 벧전 3 : 18-22)

제13절 성찬식

1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기념과 교제를 위한 성찬 예식이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적인 성례이며, 주님의 희생적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 구원 및 모든 영적 축복의 약속을 갖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찬식은 특별히 그 중요성에 대하여 경건한 감사의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며,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성찬식은 교제의 축제이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출 12 : 1-14; 마 26 : 26-29; 막 14 : 22-25; 눅 22 : 17-20; 요 6 : 28-58; 고전 10 : 14-21; 11 : 23-32)

제14절 신유

14. 우리는 신유의 성경교리를 믿으며, 신자들로 하여금 병자의 치유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의과학의 수단을 통해서 병자들을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왕하 5 : 1-19; 시 103 : 1-5; 마 4 : 23-24; 9 : 18-35; 요 4 : 46-54; 행 5 : 12-16; 9 : 32-42; 14 : 8-15; 고전 12 : 4-11; 고후 12 : 7-10; 약 5 : 13-16)

제15절 그리스도의 재림

15.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하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들리어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 25 : 31-46; 요 14 : 1-3; 행 1 : 9-11; 빌 3 : 20-21; 살전 4 : 13-18; 딤후 2 : 11-14; 히 9 : 26-28; 벧후 3 : 3-15; 계 1 : 7-8; 22 : 7-20)

제16절 부활, 심판, 운명

16.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몸이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1.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생에서 행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장래의 심판을 믿습니다.

16.2.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창 18 : 25; 삼상 2 : 10; 시 50 : 6; 사 26 : 19; 단 12 : 2-3; 마 25 : 31-46; 막 9 : 43-48; 눅 16 : 19-31; 20 : 27-38; 요 3 : 16-18; 5 : 25-29; 11 : 21-27; 행 17 : 30-31; 롬 2 : 1-16; 14 : 7-12; 고전 15 : 12-58; 고후 5 : 10; 살후 1 : 5-10; 계 20 : 11-15; 22 : 1-15)



우리의 교회론

거룩한 기독교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의 거룩한 공회의 사도적 교회”의 일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성서적 진술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속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재적 구속적 은총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²⁾ 안수를 받으며, 우리의 회중들은 보편적 교회의 구체적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성서적 진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적인 은총의 도구로서 선택되어졌으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표현하는 교회의 생명력이 되시는 성령에 의하여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초점이라는 진리에 관하여 증거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부르며, 부요한 회중적 삶을 통하여 신자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며 신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릅니다. 교회의 거룩과 신실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자신의 메시지를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결부되어 있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비율의 우주를 형성하시고 자연과 역사 속에서 신적인 사랑이 넘치도록 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냅니다. 죄가 창조를 훼손하

였을 때 선교의 구속적 성격, 즉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들에게로 회복하는 것”³⁾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회복은 근본적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정의하였으며 혹은 “의 또는 진실한 성결”⁴⁾이라고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의 우리 영혼의 갱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의 씨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도록” (창 12:1-2) 하기 위하여 복을 위해 선택된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서 나타났으며,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선포하는 이름, 한분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 하였던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삼위일체로 경험합니다. 그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은 거의 완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하며 힘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 계약 속에 들어가며 교회의 거룩한 삶의 부분으로서 민족들의 복과 치유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교단적 삶을 국제적 교회라고 명하는 비전을 품게 합니다. 그 국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교회를 열어놓으신 이래 민족적 경계들은 교회론적 경계들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함

기독교적 사역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 하라는 성서적 명령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사역을 세례에서 인정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적인 증거를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선포합니다. 신실한 제자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 은총의 외적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신적 은총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봉사를 위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문화된 리더십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사도적 사역자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깊은 개인적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교회 및 연회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는 필요로 하는 은사와 은총의 현존을 구별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연회총회에서 사역자들로 안수를 받을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집사들은 말씀과 성찬이 주요 업무가 아닌 사역에서의 직업적 봉사를 위해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들은 복음을 설교하며, 성례를 집전하며, 예배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며, 회중적 삶을 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갖추기 위해 안수를 받습니다.

감독들은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총회에서 연회 혹은 중앙의 사역을 위해 선발됩니다.

연회감독들은 정해진 지역의 교회들,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향한 목회적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중앙감독들은 교리와 성결에 있어서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며, 동료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이며, 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 교단을 향한 사도적 그리고 목회적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우월한 점은 반드시 범위에 있어서 국제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몸의 서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자원들을 위한 비전과 필요를 고찰하고 우리의 세계의 사역의 필요한 영역에 자원들을 할당하는데 참여하며, 선교와 메시지에 있어서 교회를 일치시키도록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러 연회들은 사역자들의 안수를 통하여 그리고 기타의 방법들로서 그들은 무한한 민족적, 경제적, 인종적,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

나사렛 교인들은 항상 그들의 교회를 보편적 교회의 하나의 표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서가 교회의 정부의 구체적 디자인을 보이지 않으며 우리의 정치는 우리가 동의한 것이 성서를 범하지 않는다면 공통된 동의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평형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가 구조를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2013-2017 『장정』, 역사적 진술, pp. 17-19).

나사렛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목소리를 확장하며 감독직에 제한을 두는 감리교 감

독정치의 민주적 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나사렛교회의 정치의 기본적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 우리는 세 가지 정치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1. 회중들은 매년 모이는 연회에 보내기 위해 대표들을 선출합니다.
 2. 연회들은 매 4년마다 모이는 중앙총회에 보내기 위해 대표들을 선출합니다.
 3. 중앙총회의 결정들은 전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들을 통제합니다.
- 중앙총회는 교단의 일반적 사역들을 안내하고 전 교회를 관할하는 중앙감독들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한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까지 봉사하며 매 총회에서 재선출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중앙감독은 일련의 연회들의 명단을 할당받으며 연회총회들을 이끌어야 하며 그의 혹은 그녀의 연회적 책임 영역 안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명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중앙감독들의 수는 시간에 따라 다양하지만 1960년도 이후 6명에 머물렀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은 매년 회의로서 수차례 모이는 중앙감독회의를 구성합니다.
- 중앙총회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선출합니다. 그것은 매년 모이며 교회의 중앙관료들과 부서별 책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것은 역시 교회의 일반적 사역들의 정치, 예산, 그리고 운영을 검토합니다.
- 한 지역의 개교회들은 연회들로 그룹지워지며 연회감독에 의하여 인도됩니다. 연회의 교회는 선교적 목적들을 위하여 조직되어지며 연회총회로 매년 모입니다. 연회총회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보살피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며, 연회의 건강을 돌보는 연회감독을 선출합니다.
- 교회들은 연회감독과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 그들 자신의 목회자들을 부르며 그들의 재정적 그리고 운영적 사무들을 관리합니다.
- 나사렛교회 연회들은 세계 지구로 그룹지워집니다 (즉, 아프리카 지구, 아시아-태평양 지구, 그리고 기타). 세계의 지구들은 정부적 구조들이라기보다는 선교적 구조들을 가집니다.
- 하나의 신탁조항은 교회건물들과 목사관들을 연회의 재산으로 만듭니다.
- 남자 여자 동등하게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직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명령서를 나사렛교회의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장정의 수정은 중앙총회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창 18:25; 삼상 2:10; 시 50:6; 사 26:19; 단 12:2-3; 마 25:31-46; 막 9:43-48; 눅

16:19-31; 20:27-38; 요 3:16-18; 5:25-29; 11:21-27; 행 17:30-31; 롬 2:1-16;
14:7-12; 고전 15:12-58; 고후 5:10; 살후 1:5-10; 계 20:11-15; 22:1-15).



교회

개교회

나사렛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와 마음의 정결을 통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적 선교는 “모든 민족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삼으며, 신자들을 교제와 회원 (회중)으로 동화시키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을 구비 (교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것(골 1:28)입니다.

신자의 구원, 온전케 함, 교육, 그리고 위임이 일어나는 곳은 개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선교의 대변자입니다.

연회

개교회들은 행정적으로 연회들과 지구들로 형성되어집니다.

연회는 상호 지원과 자원의 나눔과 협력을 통하여 각 지역교회의 선교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되어진 서로 의존하는 지역교회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연회감독은 연회의 실행위원회와의 협력 속에서 어느 특정한 연회를 감독합니다.

중앙총회

나사렛교회 안에서의 일치 의 근거들은 나사렛교회장정에 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은 신앙들, 정치들, 그리고 과정들입니다.

그 일치의 핵심은 장정의 신조들 속에서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구들과 언어들 속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들을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번역하고 - 넓게 보급하며 - 가르치기를 격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사렛교인들로서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지의 조직 속에 짜인 금실입니다.

이 일치의 눈에 보이는 반사는 “나사렛교회의 최고의 교리를 형성하는, 법을 제정하는, 선출된 권위인 중앙총회에 의하여 대변됩니다.

두 번째 반사는 전 교회를 대변하는 국제중앙위원회입니다.

세 번째 반사는 장정을 해석하고, 문화적 수용을 승인하고, 사역을 향해 안수하는 중앙감독회의입니다.

나사렛교회의 정부는 대표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독제의 극단과 다른 한편 무제한적인 회중주의의 극단을 피합니다.

교회는 연결된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는 줄들은 어느 때나 끊어질 수 있는 한 겹 줄보다 강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공통된 결속의 근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교회 『장정』 2013-2017).



연결되어진 교회

나사렛교회는 잘 연결된 “성결조합”입니다. 그것은 독립적 교회들의 느슨한 결합도 아니고, 신앙과 목적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진정한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한 교회의 단순한 연합체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변명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삼으라는 서로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연회들로 조직되어진 지역교회들의 상호 연결되어진 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의 헌신은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신앙들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진 교회로서 우리는:

- 신앙들을 나눕니다.
- 가치들을 나눕니다.
- 선교를 나눕니다.
- 책임들을 나눕니다.

나누어진 책임들은 세계복음화기금과 특별선교사역들을 통하여 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재정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1908년 이후, 나사렛교인들은 지구적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삼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되어진 지역들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자랐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넉넉히 헌금할 때, 당신은 당신 홀로 할 수 있

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나사렛교회는 동등한 헌금이 아니라 동등한 희생의 원리를 고수합니다. 이것은 첫째 세계 경제와 개발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적 교회에게 필수적인 성서적 입장입니다.

세계복음화기금은 교단적 재정계획입니다. 종종 당신은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라”는 문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기금보다는 더욱 넓은 용어로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쓰였습니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들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선교지구들 가운데서 생동감이 있으며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드러지는 헌금의 총계를 볼 때, 평균 86.1 퍼센트가 당신의 지역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쓰입니다. 연회 사역들은 총 재정의 4.5퍼센트를 씁니다. 당신의 나사렛 대학들은 총재정의 1.8퍼센트를 가지고 교육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교회로부터의 재정의 7.6퍼센트를 선교사들, 세계선교사역들, 그리고 기타 승인된 특별선교사역들을 위하여 세계선교기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드린 헌금이 교육, 제자화를 제공하며 복음을 어린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가져다줍니다. 당신이 드릴 때, 당신은 연결된 교회 속에서 나사렛교인들과 합류하며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잃은 자들을 만나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삼습니다.

어떻게 나사렛교인들은 선교를 후원하는가:

지역교회 사역:

86.1%

세계복음화기금

특별선교사역: 7.6%

연회사역: 4.5%

나사렛교회고등교육: 1.8%

세계복음화기금 및 특별선교지역들은 나누는 사명의 모든 부분입니다 -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국가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나사렛교인들의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그리고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자들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결, 그리고 선교적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중앙감독인 피네아스 F. 브리지로부터의 비전의 실현에 대하여 증거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구를 “주님께 구원과 성결”로 감싸는 나사렛교회의 “신적 파노라마”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혹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나사렛 교인은 이 비전의 넓은 현실에 참여합니다.

각각의 변화된 삶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온전한 구원의 웨슬리-성결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삼으라.”는 교회의 선교는 우리에게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며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의하여 제공된 모든 자원들의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가장 귀한 순서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전통”을 존귀하게 만드는 동안, 교회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는 “건축가이시며 시공자이신 하나님의” 도시를 향하여 계속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히 11:10).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신앙선언

1.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3. 사람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러므로 악에 기울어진다고 믿습니다.
4.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됨을 믿습니다.
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듭나며 죄의 지배 하에서 구원 받는 것을 믿습니다.
6. 믿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고 뒤이어 온전히 성결하게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7. 거듭난 것과 신자의 온전한 성결을 성령께서 증거 해 주심을 믿습니다.
8. 우리 주께서 재림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
- 1) *Journal of the Twentieth General Assembly, Church of the Nazarene*, (1980): 232. Franklin Cook, *The International Dimension* (1984): 49
 - 2) 이러한 말들은 각각의 안수 자격증 속에 새겨져 있다.
 - 3) Roger L. Hahn,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Keith Schwarz and Joseph Coleson, 편, 『하나님의 선교: 웨슬리적 이해』 (2011), 58.
 - 4) John Wesley, 『설교들』, II권 (1902), p. 373; John Wesley,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분명한 설명』, J. A. Wood, 『존 웨슬리에 의하여 가르쳐진 그리스도인의 완전』, 211.